광남일보

조간 제8072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음력 3월 8일)

민주당 경선 '결선에 재경선'…피로감 쌓이는 유권자

광역 소선거구 1차 후 패자부활전·기호 투표 불만 호소
통합시장부터 2개월간 지속…일부 경선은 시작도 안돼

6·3지방선거 D-40

6·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타이틀을 달고 출마할 후보자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경선 과정에서 반복되는 결선투표와 재경선 구조가 유권자의 피로도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2·8면

통합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부터 본경선·결선, 이어진 광역의원 1차 경선까지 이어진 연속 투표 구조 속에서 지지 호소 전화와 문자 발송이 반복되면서 당원들의 스트레스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2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광주시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서구3(단수공천)을 제외한 19개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들이 확정됐다.

광역의원 경선은 권리당원 100%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투표 첫날인 21일에는 당원에게 전화를 거는 '아웃바운드' 방식(총 5회)이, 둘째날인 22일에는 전날 미참여 당원이 직접 지정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투표하는 '인바운드' 방식이 적용됐다.

표면적으로는 광역의원 경선이 일단락된 모습이지만 실제 경선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대선거구로 전환된 동남갑, 북구갑·을, 광산구을 중심으로 추가 경선과 본선 기호를 정하는 투표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당원들의 투표 참여 요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른바 '패자부활전' 성격의 2차 경선은 참여를 희망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통합 선거구 전체 권리당원 투표를 다시 실시해 1명을 추가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들은 감사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재경선 참여 의사를 밝히며 다시 한 번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투표를 경험한 당원 입장에서는 또다시 반복되는 투표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1차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본선 기호(가·나·다)를 부여하기 위한 별도의 투표도 앞두고 있다. 기호 순번이 실제 선거에서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속에 후보들 역시 기호 확보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도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당원들은 동일 선거구를 놓고 여러 차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구조에 놓이게 됐다.

이처럼 경선 절차가 단계별로 반복되면서 당원들의 체감 피로도는 빠르게 누적되고 있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몇 번이나 투표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권리당원이 아니라 사실상 선거운동 대상이 된 것 같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2면서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보성 차밭서 어린 찻잎 수확 23일 전남 보성군 회천면 한 녹차밭에서 농부들이 새로 돋은 찻잎을 수확하고 있다. 곡식에 필요한 비가 내린다는 절기인 '곡우'(穀雨) 무렵에 수확한다고 해서 우전차(雨前茶)라 부르며 여린 잎으로 만들기에 은은하고 순한 맛이 특징이다. 녹차는 잎을 따는 시기에 따라 4월 우전을 시작으로, 세작, 중작, 대작 순으로 6월 중순까지 수확한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완도군수 우홍섭·무안군수 김산 후보 확정

민주, 3곳 경선 결과 발표
정기명 여수시장 탈락

정기명 여수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다. 우홍섭, 김산 후보가 각각 완도군수, 무안군수 후보로 최종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3개 시군의 기초단체장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 중 무안과 완도는 과반 득표자가 나와 후보를 확정했다.

무안에서는 현역 군수인 김산 후보가 전남도의원인 나광국 후보를 누르고 3선 도전에 나서게 됐다.

완도에서는 진도부군수를 역임한 우홍섭 후보가 지영배 후보를 꺾고 최종 후보로 뽑혔다. 당원명부 유출로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여수는 권리당원 20%, 안심번호 80%로 본경선이 치러졌다.

4명의 후보 가운데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어 여수시의회 의장을 지낸 김영규 후보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한 서영학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현역 시장인 정기명 후보는 탈락했다.

완도 우홍섭

무안 김산

민주당은 22개 시군 가운데 19곳의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을 마무리했다.

여수와 장성은 24~25일, 화순은 25~26일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토·일 신문 쉽니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서 계속

전남 전력 213% '과잉'…"수요 창출·송전망 확충을"

한은 경제포럼, 재생에너지 생산-소비 불균형 지적
출력 제어에 사업성 악화…RE100 산단 확대 등 강조

광주·전남 재생에너지 정책이 '생산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계통·수요·산업을 아우르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의 전력자립률이 213%를 넘어서는 등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이 큰 반면, 송전망 부족과 출력제어로 사업성은 악화하는 상황이어서 지역 내 전력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광주·전남지역 재생에너지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경제포럼에서 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시장 흐름과 국내 태양광 산업의 과제를 짚었다.

강 연구원은 "글로벌 태양광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 기조와 기술 발전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 AI·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며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2020년 5.5GW를 정점으로 감소해 2024년 3.1GW 수준에 머물렀지만, 정책 변화와 RE100 확산으로 2030년에는 4GW 수준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태양광 발전사업 전력망(계통) 연계 제한과 신규 사업 인허가 지연, 송전망 부족, 주민 수용성 및 환경 문제 등은 주요 제약 요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중국산 부품 수입 증가로 국내 태양광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점도 문제로 꼽혔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 부족 해소 및 ESS 확충하고 설치기준 명확화 및 절차 간소화,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며 "국내 태양광 산업 활성화에는 저탄소 모듈 인증 개선을 통한 국산 제품 수요 확대, 영농형·주차장형·집적단지형 등 입지유형별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도입, 출력제어 최소화 및 이격거리 완화 등의 규제 합리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승희 전남연구원 실장은 '광주전남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과제: 탄소중립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지역 에너지 수급 구조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등을 설명했다.

광주는 가정·서비스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로 소비량과 전력 공급량 모두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는 반면, 전남은 석유화학·철강 등 제조업 중심 구조로 소비(전국 1위)와 공급(전국 2위)이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2면서 계속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